

직장불자회 가을불심 달군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직장직능 연합불자회들이 무료의료봉사, 평화통일기원법회, 합동성지순례 등 풍성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 불자회를 중심으로 공무원 불자회가 연합회 구성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연내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 이하 연합회)는 1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로 무료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연합회는 국립의료원, 국립경향병원을 비롯해 6개 병원불자회 소속 의사, 간호사 20여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하고 내과, 치과, 안과, 한의과 등 4개과 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 부처님의 자비인술을 펼쳤다. 무료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합장주를 나눠주어 불교포교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김주호 회장은 "무료봉사는 연합회 조직 강화는 물론 회원들에게 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지정 수행도량인 경북 안동 홍은사 창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일 과거사 성전암 조실 철웅, 조계종 포교인장 정연스님을 모시고 남북평화통일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국 산악인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평화통일의 의지를 재 천명하고 다음날 인근 주왕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전국 공무원 불자들도 7~8일 제 4교구 분사 월정사로 합동성지순례를 떠난다. 상원사 적멸보궁참배, 공직자 합동수계법회, 원주공룡사 순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이번 성지순례는 감사원이 주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및 정부부처 공무원 불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6월 속리산에서 열린 직장직능지도자대회 이후 개별 공무원 불자 사이에 연합회 결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가을을 맞아 직장직능연합회들이 의료봉사, 합동성지순례를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사진은 9월23일 서울경기 교사불자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 모습.

병원 불자 권 강원도 홍천서 무료진료 전국 산악 인련 남북 평화통일 발원 법회 전국 공무원 불자 200여명 월정사 합동순례

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가 연합회 창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불자회 인흥부 총무는 "전국 공무원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공무원 연합불자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연내 공무원불자 연합회 창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3~24일 김천 직지사에서 임원 연합 수련회를 갖고 지금의 협의회를 연합회로 전환, 미 창립 불자회의 창립을 유도하고 사내 통신문을 활용 사이버포교

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서울 경기 교사 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 이하 연합회)는 9월 23일 포교인 4층 법당에서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임완숙 회장은 "교사불자연합회가 이제 걸음마를 떴고 우뚝섰다"며 "앞으로 불교기초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법회를 통해 신심을 키워 청소년 포교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opia.com)

우리모임에선

성불회 도서 위령제

예비역 장성 불교신도들로 구성된 성불회(회장 최영희 전 국방장관)는 9월 27~30일까지 일본 나가노현의 마쓰시로(松代) 지하호를 방문, 2차 대전 당시 지하호 건설과정에서 희생당한 7천여 동포들의 영령들을 위해 위령제를 지냈다. 이와 함께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상을 보내 건립된 선광사와 한국 사찰 금강사(주지 운산)도 참배했다.

구로승무소 학림사 순례

구로승무소 법우회(회장 박창식)는 9월 26일 수락산 학림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이 참석, 108배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수락산 등반을 했다.

한일병원 반야회 정기법회

한일병원 반야회(회장 이영숙)는 9월 26일 병원 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선형 법사가 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반야회원 및 환자 15명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다.

네불동 대경도임 철야정진

네미암 불교동우회 대경도임 (시찰 최종후)은 9월30일 영주부석사에서 철야 정진법회를 봉행하고 다음날 회방사를 참배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 참가자 20여명은 봉화 송이축제와 영주 인삼축제에 참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시청 불심회 감사 참배

서울시청 불심회(회장 이정환)는 3일 성지순례를 떠난다. 40여명이 참가할 이번 성지순례에서 불심회원들은 감사·동학사를 참배할 예정이다. 출발은 시청광장에서 6시30분 (02)3707-9287



◇통일정진 불교연대는 9월27일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발족 200일 기념 간담회를 갖고 불교계 통일 운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찰복원등 남북교류 강화"

통일정진 불교연대 200일 기념 통일간담회



21개 통일관련 불교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운영위원장 상태용)가 지난 3월 1일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상과 화합의 통일을 이루는 원력보살이 되자"는 서원 아래 밝직한 통일정진불교연대는 신행운동이자 민족되기·통일운동으로서 정토화와 우리라는선우를 중심으로 24시간 철야정진을 계속하고 있다. 통일정진불교연대는 9월27일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발족 200일 기념 간담회를 개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정세와 동향·전망을 논의하고 향후 불교계 통일

격화하면 관광지 개발을 위한 전통 문화 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찰 복원 등 불교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민족 통일을 위한 화해와 정진적 안정을 위해서도 북한에서 거부감이 없는 불교문화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문수님은 "문화 교류에 앞서 민족 상고사와 독립운동사 등 역사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천만 북한주민이 원하는 식량·약품·생활품 등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시대불교포럼 노규남 평화통일 위원장은 "불교계의 통일운동도 이제 정부주도의 통일운동시대란 변화에 발맞추어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한 통일이론 정립, 탈북자 심신수련, 북한문화재 복원, 통일 교육 등 특화된 남북교류에 나서야 한다"면서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남한사회의 통일논의 즉, 남북대화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원불교 새삼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통일이후의 사상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민족종교인 불교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남한사회의 단군을 둘러싼 개신교·민족종교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불청 정우식 정책기획실장은 "조물론 청년불교지도자를 초청해 조계사내에 통일 보리수를 심는 등 청년불교문화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성오 인텔리시티 대표, 조성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 금강선원 강정락 이사, 좋은벗들 정인숙 사무국장, JTS 이지원 간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식량등 인도적 후원 필요

화쟁사상 이념통합 방안

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상태용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0일 지도정진과 관련) "원효의 화쟁사상을 배워 온 불자들이 지도수행과 통일운동의 체험을 바탕으로 통일불사에 나선 것은 불교적 이념과 수행과 연계된 바람직한 불교사회운동의 전형이었다"고 평가하고, "종단철이나 조계종을 중심으로 대북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불교단체들의 개별적인 통일운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스님은 "향후 불교계 통일운동의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북한이 개방·개혁을 본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교어린이교사대학 수강생 60명(선착순)을 13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로, 불교의 기초, 포교방법 및 지도자론, 아동교육과 심리, 어린이 법회 지도의 실제 등의 과목을 배운다. (02)720-7060 ▲삼화불교대 신입생=삼화불교대는 2년제 불교학과, 불교미술과, 중국어과, 신문방송과, 유아교육과 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원시교부는 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02)511-2026-8 ▲법보신문사 김형규 기자는 14일 오후 1시 전대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룸에서 김형규양과 화촉을 밝힌다. (02)725-7014

게시판

- ▲**알림**
▲**무료 사회교육프로그램 실시**=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4일부터 수화교실, 사예, 사자고사서 강좌를 무료로 실시한다.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한달에 한번 영정사진을 찍어준다. (02)421-6077
▲**무료 간병인 교육**=연꽃마을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후원으로 주부 준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병인 취업대비 단기훈련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 훈련시기는 10월 16~20일 5일간이며 13일까지 접수한다. (02)363-7884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본 동중합사회복지관은 65세 이상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다. 수업은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1시까지이고 희망자는 7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02)817-8052
▲**예식홀 무료 대여**=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평일 오후 5시 이후, 토요일 오후 12시 이후에 예식홀 및 턱시도, 드레스, 신부화장, 사진, VTR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식 할당전까지 대여신청을 해야 한다. (02)2282-1100
- ▲**강좌**
▲**불교기초강좌** =강남포교원은 10일부터 한 달 동안 불교입문 초심자를 위한 기초강좌를 개최한다. 수업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에서 2시30분까지이며 각석스님이 강의한다. (02)539-2631
▲**대승기신론**=법륜불교대학은 5일부터 6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송광사 서을분원 법당에서 대승기신론 강좌를 연다. 또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에는 불교기초교리강좌도 개최한다. (02)733-5322
▲**불교교리강좌**=국정회는 6~12월 29일까지 무전장 스님을 강사로 국경의 법당에서 불교교리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02)730-1249
▲**백련 불교아카데미**=성철선사상연구원은 7일 오후 2시 '수행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잡(雜) 다시 읽기'를 주제로 제16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영남대 최재록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대 박

- 규태 강사, 불교신문 조병환 기자가 토론한다. (02)744-1541
- ▲**모임**
▲**이미용 자원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두발 컷트, 파마 등 이미지 서비스를 해줄 자원봉사자를 급히 구한다. 봉사 시간은 월1회로 봉사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02)365-3677
▲**내소사 답사**=터사랑은 8일 내소사와 번산반도 유적순례에 동참할 답사자를 모집한다. 역사탐방연구회 영상군이 안내하는 이번 답사는 부안 내소사, 개암사, 반계 유형 유허지를 순례한다. (02)725-1284
▲**어린이교사대학 수강생**=조계종 포교원은 현직 어린이 포교

-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교어린이교사대학 수강생 60명(선착순)을 13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로, 불교의 기초, 포교방법 및 지도자론, 아동교육과 심리, 어린이 법회 지도의 실제 등의 과목을 배운다. (02)720-7060 ▲삼화불교대 신입생=삼화불교대는 2년제 불교학과, 불교미술과, 중국어과, 신문방송과, 유아교육과 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원시교부는 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02)511-2026-8 ▲법보신문사 김형규 기자는 14일 오후 1시 전대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룸에서 김형규양과 화촉을 밝힌다. (02)725-7014

신인간이 드러나고 있다!!!

www.goldenflower.co.kr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다빈치(140원)

성인(140원)

자비(140원)

1080P(140원)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 ① 신비감이 감도는 '신성무(神性舞)' 명상 음악 테이프(6,000원) 무료 증정.
- ② 무료로 인도 '오쇼 명상 휴양제(12박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추첨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 및 경품 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 투어 일정: 12월 6(월)수 - 12월 18(일)
- ③ 투어 참가시, 투어비용 10만원 환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황금꽃**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100세트 한정판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국제약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인 신원(배꼽)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줍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아가 엄마의 태를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한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가 되면 끝 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경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양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원)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두덩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때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주구 김이진)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 **해당되는 증상(0)이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생리예예만이나 신경이 있다.
7. 무릎이 있거나 외음이가 있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가 아프고 있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옆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심장질환으로 고생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